

# 부산지역 500대 제조기업 2024년 신규 채용 전망 조사

2024. 2.



# <조사개요>

## 1. 조사 명

- 부산지역 500대 제조기업 2024년 신규 채용 전망 조사

## 2. 조사 목적

- 기업의 지속 발전과 혁신을 위한 인재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지만 기업에 녹록지 않은 경영환경으로 인해 고용 여력이 뒷받침되기 어려운 상황임
- 이에 지역 주요 제조기업의 2024년 신규 채용 전망을 조사하여 지역 채용 시장을 예단하고 향후 관련 조사 및 건의, 정책 마련의 기초로 활용코자 함

## 3. 조사 대상

- 2023년 매출액 기준 부산지역 500대 제조기업  
※ 조사표 회수 300개 사

## 4. 조사 방법

- 구조화된 조사표를 통한 전화/FAX 조사

## 5. 조사 내용

- 2024년 신규 채용 전망
- 신규 채용 관련 기업 현황 및 의견

## 6. 참고

- 본 조사의 통계는 응답 업체 수(300개 사)를 기준으로 산출됨
- 복수 응답 문항의 응답 비율은 빈도수 합계를 기준으로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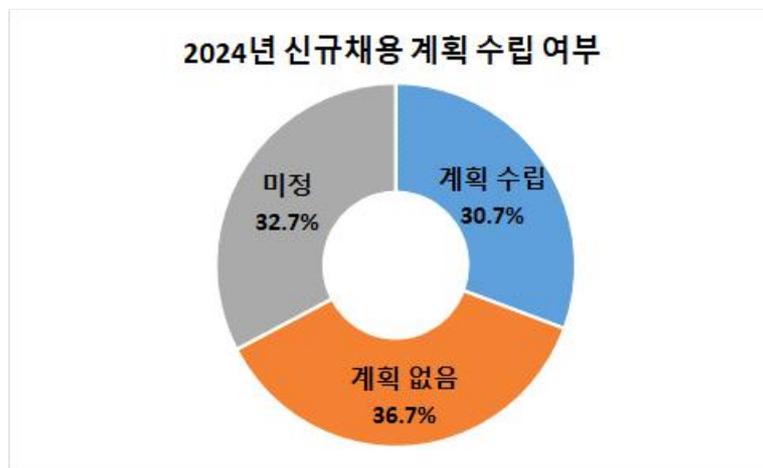
# I 부산지역 제조업 2024년 신규 채용 전망

## □ 2024년 신규 채용 계획

- 신규 채용 계획을 수립한 기업 30.7%, 채용 계획 없는 기업 36.7% 수준
- 녹록치 않은 경영환경으로 신규 채용 여력 낮아 적극적인 계획 수립 어려워

## ○ 신규 채용 계획을 수립한 지역 주요 제조기업 30.7%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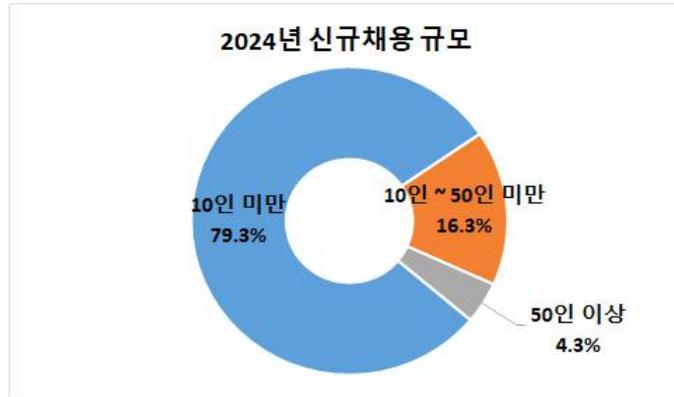
- 부산지역 매출 500대 제조기업의 2024년 신규 채용 계획 수립 여부를 조사한 결과 연 초 계획을 수립한 기업의 비중 30.7% 보다 신규 채용 계획이 없는 기업의 비중이 36.7%로 더 높은 상황



- 현재 계획이 없거나 미정인 기업들이 향후 연중 수시 채용할 여지는 남아있으나 전반적으로 올해 지역 제조업 채용 시장의 위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
- 신규 채용 계획 수립에 적극적이지 못한 원인은 고금리·고물가를 비롯한 녹록치 않은 경영환경이 이어지면서 채용 계획에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

○ **계획된 채용 규모 전체 1,447명, 기업당 채용 규모는 10인 미만 소규모 수준이 대다수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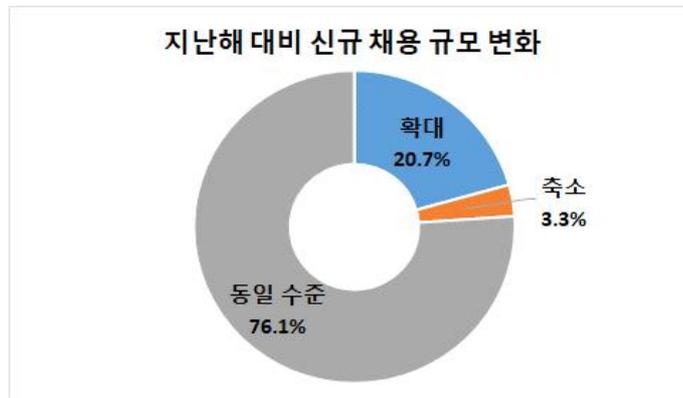
- 신규 채용 계획이 수립된 기업의 전체 채용 규모는 1,447명 수준으로 확인되나 기업당 채용 규모는 50인 이상 대규모 신규 채용을 계획 중인 기업이 4.3%에 불과한 반면 대다수의 기업이 10인 미만의 비교적 소규모 채용을 예상하는 것으로 확인됨



- 일부 신규 투자 등이 발생한 기업에서 50인 이상의 신규 채용을 계획하고 있고 신발·섬유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채용 인원이 확인됐으나 전반적인 기업당 채용 규모는 크지 않음

○ **채용 규모는 대체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다수**

- 신규 채용 계획을 수립한 기업들의 76.1%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의 채용 규모를 계획하고 있으며, 확대 계획을 수립한 비중은 20.7%, 축소 계획은 3.3%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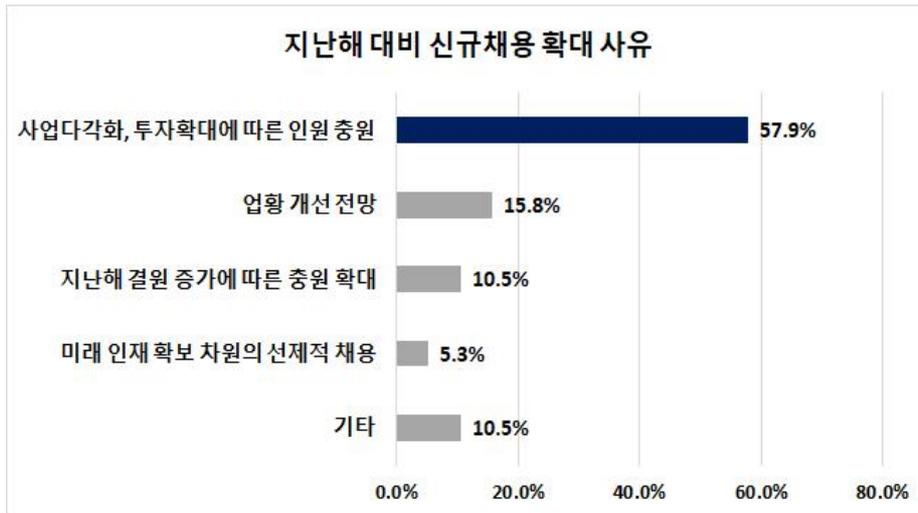


## □ 신규 채용 계획 수립 관련 의견

- 신규 채용 확대 기업은 사업다각화와 투자 확대에 기반 한 인원 증원 필요
- 신규 채용 계획이 없는 기업은 현재 인력 상황에 변동 없는 현상 유지 지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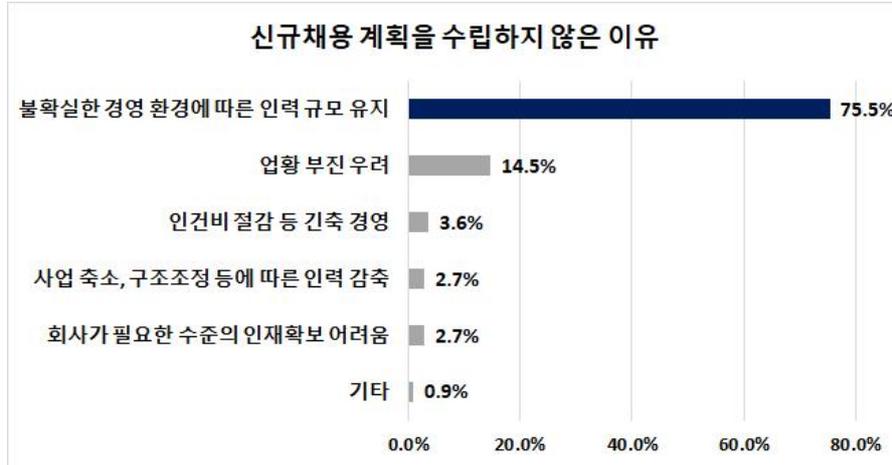
## ○ 지난해 대비 신규 채용 확대를 계획한 기업의 가장 주된 이유는 '사업다각화, 투자 확대 등에 따른 인원 증원'

- 신규 채용 확대의 주된 이유는 '사업다각화 및 투자 확대에 따른 인원 증원'이 57.9%로 가장 높게 나타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신규 채용 확대가 이뤄지고 있음
- 이어 업황 개선 전망 15.8%, 지난해 결원 증가에 따른 증원 확대 10.5%, 미래 인재 확보 차원의 선제 대응 5.3%, 기타 10.5% 등의 순



## ○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이 없는 주된 이유는 불확실한 경영환경으로 인해 인력 변동 없이 '현상 유지' 지향

- 신규 채용 계획 없는 기업의 주된 이유는 불확실한 경영 환경의 영향으로 인력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워 채용 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비중이 75.5%로 가장 높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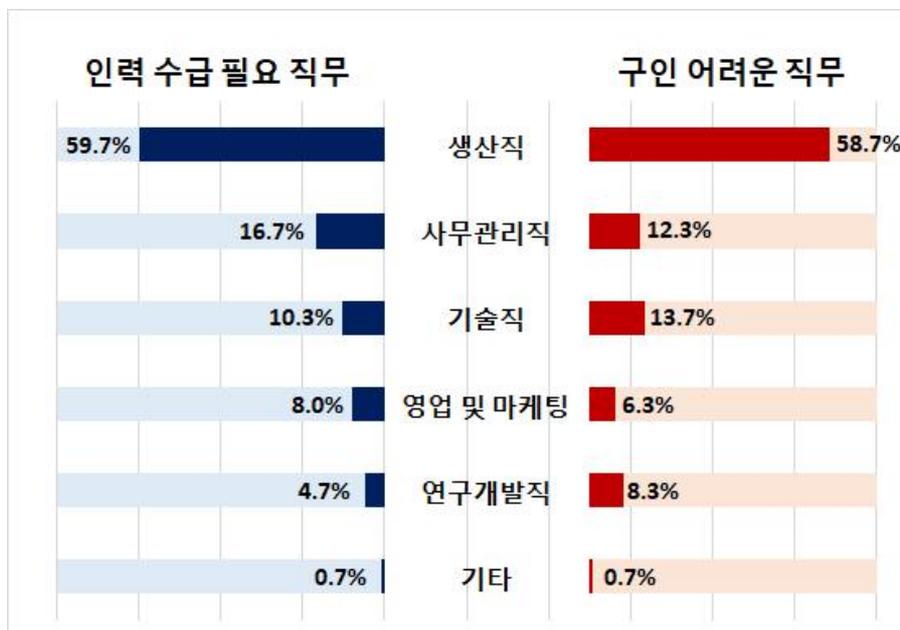
- 한편 업황 부진 전망으로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기업이 14.5%로 뒤를 이었으며 사업축소 또는 구조조정으로 인력을 감축하거나 긴축 경영에 돌입하는 등 실제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비중도 5.4% 확인됨

## II 인력 채용 관련 현황 및 의견

### □ 인력 수급 여건

#### ○ 부산지역 제조업의 인력 수급이 가장 필요한 직무는 '생산직' 구인이 가장 어려운 직무 역시 '생산직'

- 부산지역 제조업이 인력 수급을 가장 필요로 하는 직무는 59.7%가 생산직을 꼽았으며 동시에 구인난이 가장 큰 직무 역시 58.7%가 생산직으로 응답함



- 제조업 특성상 생산직에 대한 인력 수요가 가장 많은 상황이며 동시에 구인난 역시 생산직에서 가장 심각
- 연구·개발직 역시 인력 수급의 필요성은 낮다 하더라도 구인난이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어 기업이 원하는 직무에서 필요 인력을 원활히 확보하는데 여전히 문제가 발생

## □ 학력별 초임 임금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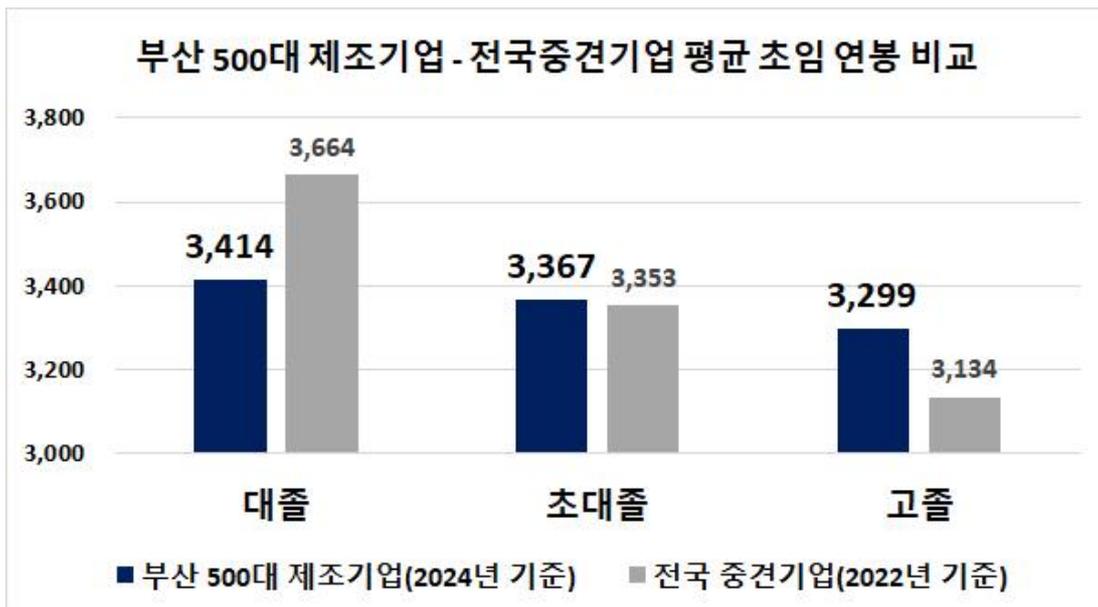
- 제조업 평균 초임 연봉 대졸 3,414만원, 초대졸 3,367만원, 고졸 3,299만원
- 전국 중견기업 대비 대졸 초임 연봉 낮아, 임금이 대졸 구인난 심화의 주요 원인

## ○ 부산지역 제조업(상위 500대 기업)의 2024년 평균 초임 수준은 대졸 3,414만원, 초대졸 3,367만원, 고졸 3,299만원

- 부산지역 제조업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의 초임 수준<sup>1)</sup>은 학력에 따라 차등이 존재하나 대체로 3천만 원 초반 수준에 형성되어 있음

## ○ 전국 중견기업 초임 연봉과의 비교

-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중견기업의 2022년 기준 평균 초임 연봉<sup>2)</sup>과 비교하면 대졸에 경우 부산이 250만원 낮지만 초대졸과 고졸 초임 연봉은 각각 14만원, 165만원 더 높음



※ 다만 비교 시점 간 차이를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전국중견기업과의 초임 연봉 차이는 대졸에선 격차가 더욱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초대졸·고졸 역시 격차가 좁혀지거나 오히려 역전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함

1) 부산지역 500대 제조기업의 평균 초임 산정 시 연구개발직 제외  
2) 통계청 중견기업 초임 연봉 통계의 기준은 2022년으로 비교 시점 차이 존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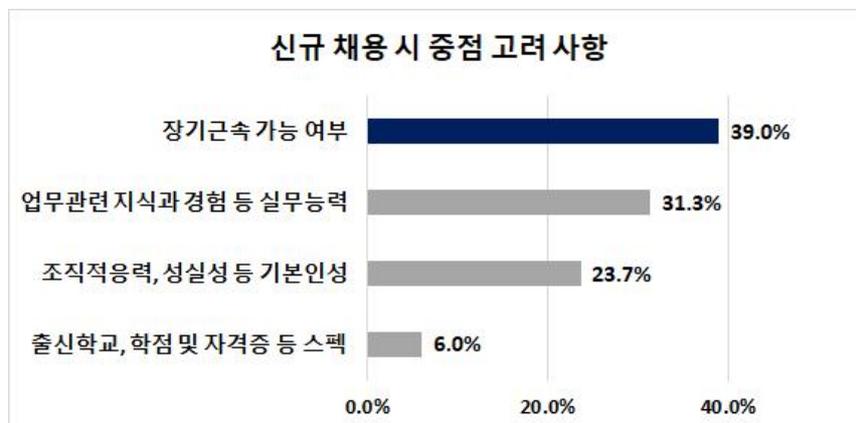
- 초대졸·고졸 임금 수준이 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음에도 생산직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임금 이외의 일자리 요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방증
- 대졸 초임은 조사 대상 지역 상위 제조기업의 수준이 일반적인 지역 기업보다 준수한 편이라 볼 순 있지만, 전국 중견기업과의 비교에선 다소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임금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인책 높은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

## □ 채용 관련 중점 사항과 애로사항

- 신규 채용 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장기근속 여부
- 직무 적합 인재 부족 생산직에서 가장 심각, 연구·기술직도 낮은 임금으로 인재 확보 난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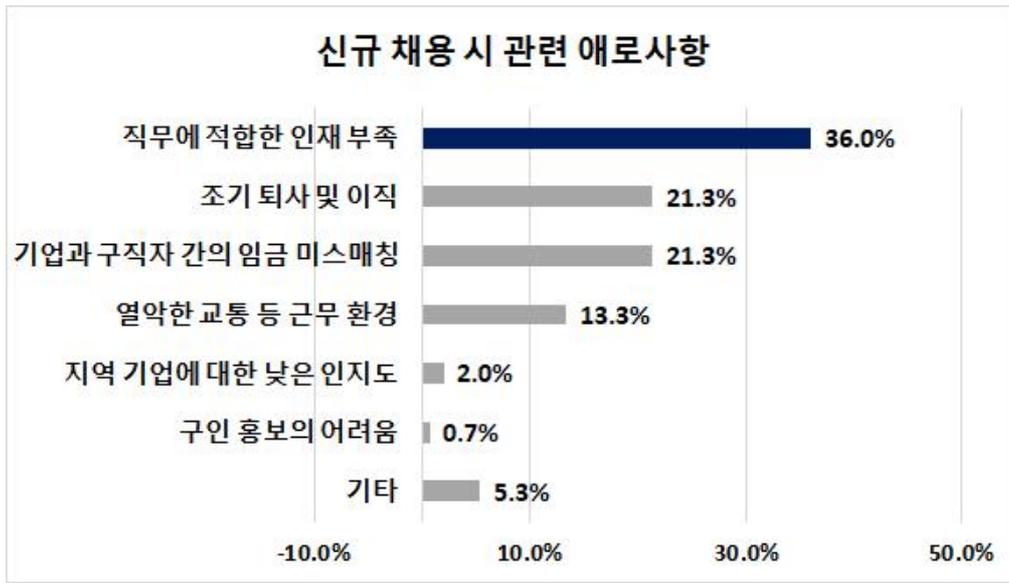
## ○ 부산지역 제조업이 신규 채용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장기근속 가능 여부

- 신규 채용에서 지역 제조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은 근로자의 장기근속 가능 여부가 39.0%로 가장 높음
- 이어 업무 관련 지식과 경험 등 실무능력 31.3%, 조직 적응력 및 성실성 등 기본 인성 23.7%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출신학교나 학점 등 이른바 스펙에 대한 중요성은 6.0%로 비중이 작음



## ○ 신규 채용 시 겪는 가장 큰 애로는 직무에 적합한 인재 부족

- 신규 채용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애로는 직무에 적합한 인재 부족이 36.0%로 가장 높고 이어 조기 퇴사 및 이직 21.3%, 임금 미스매칭 21.3%, 열악한 교통 등 근무 환경 13.3% 등의 순



- 직무 적합 인재 부족의 문제는 생산직에 경우 제조업 기피 현상 심화, 주요 산단의 낮은 접근성, 열악한 근무환경 등이 주된 요인으로 볼 수 있음
- 한편 전문 기술 및 연구직에서는 지역 제조업의 초임 연봉 수준<sup>3)</sup>이 3천만 원 중반 대에 머물고 있어 임금 수준이 구인난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사료됨
- 따라서 청년들이 원하는 수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을 비롯한 종합적인 지원 강화가 필요하며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고학력 일자리의 임금 수준 향상 노력이 동반돼야 할 것으로 보임

3) 부산지역 500대 제조기업 직무별 대졸 평균 초임: 기술직 3,625만원, 연구개발직 3,584만원